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1월 26일 13:30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

제 목 : 경제전망(2020.11월)

(붙임) 참 조

[문의처 : 조사국] 경제성장 : 조사총괄팀 Tel. 02-759-4202, 지출부문 : 동향분석팀 Tel. 02-759-4234
고 용 : 고용분석팀 Tel. 02-759-4232, 물 가 : 물가분석부 Tel. 02-759-4231
대외거래 : 국제무역팀 Tel. 02-759-4421, 국외경제 : 국제경제부 Tel. 02-759-5280
[공보관] 02-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(붙임)

경제전망

2020. 11.

조사국

차 례

< 요약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대외 여건 점검 | 1 |
| 1. 세계경제 | 1 |
| 2. 주요 전망 전제치 | 6 |
| II. 거시경제 전망 | 7 |
| 1. 경제성장 | 7 |
| 2. 고 용 | 11 |
| 3. 물 가 | 12 |
| 4. 경상수지 | 13 |
| <참고>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... | 14 |

요 약

-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,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-1.1%,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.0%, 2.5% 수준을 나타낼 전망
 -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,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 - 민간소비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,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
 - 설비투자는 IT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비IT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 -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될 전망
 -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상품교역도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 - 향후 성장경로는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·치료제 상용화 시기, 반도체 경기 향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- 취업자수는 2020년중 20만명 감소한 후, 2021년, 2022년중 각각 13만명, 21만명 증가할 전망
 -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 되겠지만, 내년에는 대면서비스 수요회복, 제조업 업황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□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.5%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.0%, 1.5%로 점차 높아질 전망

○ 이는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

□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,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650억 달러, 600억달러 및 580억달러로 전망

경제 전망

(%)

| | 2019 | 2020 | | | 2021 ^{e)} | |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▪ GDP ¹⁾ | 2.0 | -0.7 | -1.4 | -1.1 | 2.6 | 3.3 | 3.0 | 2.5 |
| 민간소비 | 1.7 | -4.4 | -4.1 | -4.3 | 2.9 | 3.2 | 3.1 | 2.5 |
| 설비투자 | -7.5 | 5.6 | 5.7 | 5.7 | 4.9 | 3.6 | 4.3 | 3.2 |
| 지식재산생산물투자 | 3.0 | 3.3 | 4.2 | 3.8 | 3.8 | 4.0 | 3.9 | 3.7 |
| 건설투자 | -2.5 | 1.7 | -2.9 | -0.7 | -1.8 | 2.6 | 0.5 | 2.1 |
| 상품수출 | 0.5 | -2.9 | -0.4 | -1.6 | 9.3 | 1.9 | 5.3 | 2.3 |
| 상품수입 | -0.8 | -0.9 | -0.3 | -0.6 | 7.5 | 4.5 | 5.9 | 3.2 |
| ▪ 취업자수 증감(만명) ¹⁾ | 30 | -6 | -35 | -20 | 5 | 21 | 13 | 21 |
| ▪ 실업률 | 3.8 | 4.3 | 3.7 | 4.0 | 4.2 | 3.4 | 3.8 | 3.7 |
| ▪ 고용률 | 60.9 | 60.0 | 60.3 | 60.1 | 59.8 | 60.6 | 60.2 | 60.5 |
| ▪ 소비자물가 ¹⁾ | 0.4 | 0.6 | 0.5 | 0.5 | 0.7 | 1.2 | 1.0 | 1.5 |
| 식료품·에너지 제외 | 0.7 | 0.4 | 0.3 | 0.3 | 0.7 | 1.3 | 1.0 | 1.3 |
| 농산물·석유류 제외 | 0.9 | 0.6 | 0.7 | 0.7 | 0.8 | 1.2 | 1.0 | 1.3 |
| ▪ 경상수지(억달러) | 600 | 192 | 458 | 650 | 260 | 340 | 600 | 58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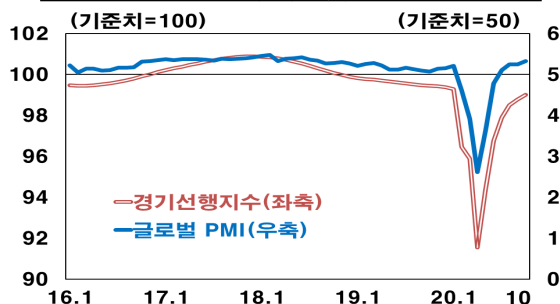
주: 1) 전년동기대비

I. 대외 여건 점검

1. 세계경제

- (성장)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후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
 -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중국의 투자확대로 개선되다가,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선세가 다소 약화
 - 앞으로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,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 -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

경기선행지수¹⁾ 및 글로벌 PMI



주: 1) OECD회원국과 6개 신흥국(중국, 브라질, 인도, 러시아, 인도네시아, 남아공) 기준
자료: OECD, JP Morgan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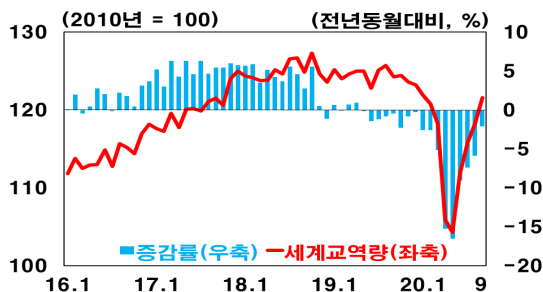
| | 전망시점 | 2019 | 2020 ^{e)} | 2021 ^{e)}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IMF | 20.10월 | 2.8 | -4.4 | 5.2 |
| (선진국) | | 1.7 | -5.8 | 3.9 |
| (신흥국) | | 3.7 | -3.3 | 6.0 |
| OECD | 20.9월 | 2.6 | -4.5 | 5.0 |
| Global Insight | 20.11월 | 2.9 | -4.3 | 4.6 |
| 5개 IB 평균 | 20.11월 | 3.0 | -3.7 | 5.6 |

자료: 각 기관

- (교역)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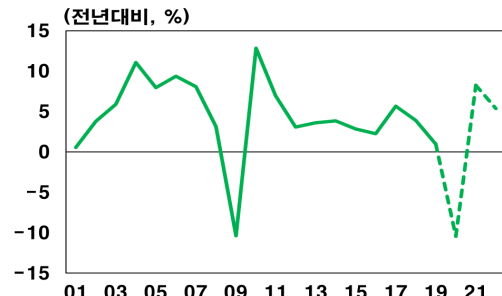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교역은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품교역은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
-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

세계상품교역량¹⁾



주: 1) 상품수입물량 기준
자료: CPB

세계교역 신장률¹⁾



주: 1)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물량 기준, 2020, 2021, 2022년은 전망치
자료: IMF WEO(20.10월)

□ (미국)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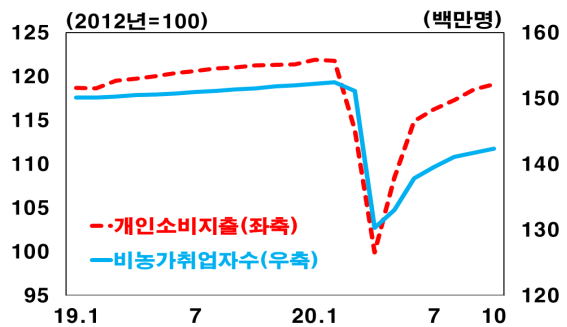
-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
- 향후 바이든 신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 -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,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정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

미국 주요 경제지표

| | (전월대비, %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0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산업생산 | 4.2 | 0.7 | -0.4 | 1.1 |
| 서비스 소비 | 1.3 | 1.1 | 0.8 | 0.6 |
| 소매 판매 | 1.1 | 1.4 | 1.6 | 0.3 |
| 실업률 | 10.2 | 8.4 | 7.9 | 6.9 |
| ISM제조업지수 ¹⁾ | 54.2 | 56.0 | 55.4 | 59.3 |
| ISM비제조업지수 ¹⁾ | 58.1 | 56.9 | 57.8 | 56.6 |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연준, 경제분석국, 인구통계국, 노동통계국, ISM

개인소비지출¹⁾ 및 취업자수



주: 1) 상품 및 서비스 소비
 자료: 경제분석국, 인구통계국

□ (유로지역)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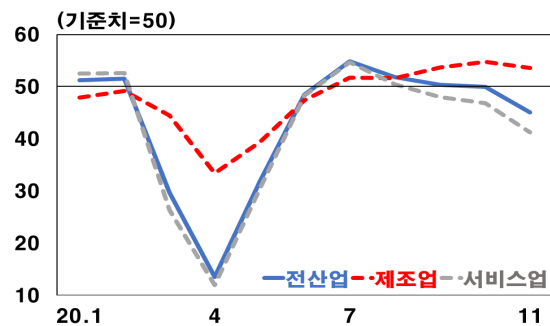
- 9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약화
- 향후 ECB의 추가 완화정책,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경기가 다시 개선흐름을 나타낼 전망
 - 브렉시트 협상,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

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

| | (전월대비, %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| 20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산업생산 | 5.3 | 0.6 | -0.4 | .. |
| 서비스생산 | 4.5 | 2.0 | .. | .. |
| 소매 판매 | -1.7 | 4.2 | -2.0 | .. |
| 실업률 | 8.1 | 8.3 | 8.3 | .. |
| 제조업PMI ¹⁾²⁾ | 51.8 | 51.7 | 53.7 | 54.8 [53.6] |
| 서비스PMI ¹⁾²⁾ | 54.7 | 50.5 | 48.0 | 46.9 [41.3] |

주: 1) 기준치=50 2) [] 내는 20.11월 중
 자료: EU통계청, IHS Markit

구매관리자지수(PMI)



자료: IHS Markit

□ (일본) 일시적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겠으나 내년부터는 미약하나마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

-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
- 향후 소비부진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점차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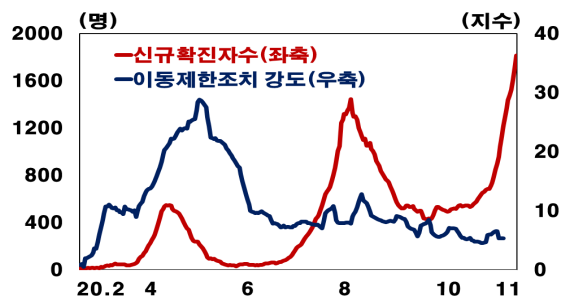
일본 주요 경제지표

(전월대비, %)

| | 20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산업생산 | 8.7 | 1.0 | 3.9 | .. |
| 소매 판매 | -3.4 | 4.6 | -0.1 | .. |
| 수출(통관) | 6.1 | 4.9 | 3.5 | 2.6 |
| 민간기계수주액 ¹⁾ | 6.3 | 0.2 | -4.4 | .. |
| 제조업 PMI ²⁾³⁾ | 45.2 | 47.2 | 47.7 | 48.7 [48.3] |
| 서비스업 PMI ²⁾³⁾ | 45.4 | 45.0 | 46.9 | 47.7 [46.7] |

주: 1) 선박, 전력 제외 2) 기준치=50
3) 10월 내는 20.11월중
자료: 경제산업성, 재무성, 내각부, IHS Markit

신규 확진자수¹⁾ 및 이동제한조치 강도²⁾



주: 1) 7일 이동 평균
2) Effective Lockdown Index(ELI) 기준
자료: WHO, Goldman Sachs

□ (중국)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
-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지속
- 향후 '쌍순환' 방식 성장전략 추진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
 - 미·중 갈등 심화,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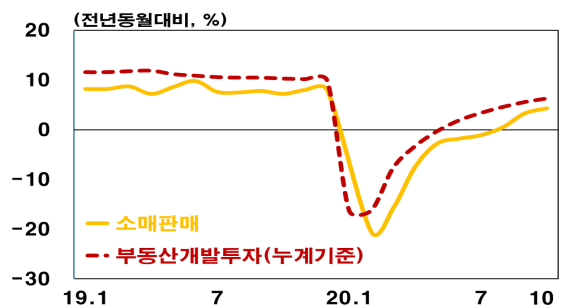
중국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| | 20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산업생산 | 4.8 | 5.6 | 6.9 | 6.9 |
| 소매 판매 | -1.1 | 0.5 | 3.3 | 4.3 |
| 고정투자 ¹⁾ | -1.6 | -0.3 | 0.8 | 1.8 |
| 수출 | 7.2 | 9.5 | 9.9 | 11.4 |
| 제조업PMI ²⁾ | 51.1 | 51.0 | 51.5 | 51.4 |
| 서비스업PMI ²⁾³⁾ | 53.1 | 54.3 | 55.2 | 55.5 |

주: 1) 누계 기준 2) 기준치=50
3) 서비스업 상업활동지수 기준
자료: 국가통계국, 해관총서

소매 판매 및 부동산투자



자료: 국가통계국

□ (신홍국)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선흐름이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

- 아세안5국은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선속도는 완만할 전망
-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봉쇄조치 완화,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
 - 9월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고 10월 전산업PMI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

아세안5¹⁾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| | 20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산업생산 ²⁾ | -7.4 | -6.0 | -2.5 | .. |
| 소매 판매 | -8.6 | -5.6 | .. | .. |
| 수출 | -2.9 | -2.5 | 6.9 | .. |
| (대중수출) | 6.6 | 4.6 | 20.8 | .. |
| 제조업PMI ³⁾ | 47.8 | 48.6 | 49.7 | 49.5 |

주: 1)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

2) 인도네시아 제외 3)기준치=50

자료: 각국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인도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| | 20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산업생산 | -10.8 | -7.4 | 0.2 | .. |
| 자동차판매 | -18.6 | -1.3 | 7.2 | 10.5 |
| 수출 | -10.2 | -12.7 | 6.0 | -5.1 |
| 제조업PMI ¹⁾ | 46.0 | 52.0 | 56.8 | 58.9 |
| 전산업PMI ¹⁾ | 37.2 | 46.0 | 54.6 | 58.0 |

주: 1) 기준치=50

자료: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- 브라질은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
- 러시아는 저유가 지속,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할 전망
 - 원유감산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9월 이후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지표도 악화

브라질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| | 20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산업생산 | -2.7 | -2.5 | 3.4 | .. |
| 소매 판매 | 5.5 | 6.2 | 7.3 | .. |
| 수출 | -3.5 | -11.1 | -10.0 | -8.8 |
| 제조업PMI ¹⁾ | 58.2 | 64.7 | 64.9 | 66.7 |
| 서비스업PMI ¹⁾ | 42.5 | 49.5 | 50.4 | 52.3 |

주: 1) 기준치=50

자료: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러시아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| | 20.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산업생산 | -5.9 | -4.2 | -3.6 | -5.9 |
| 소매 판매 | -1.9 | -2.7 | -3.0 | -2.4 |
| 수출 | -26.9 | -32.5 | -14.1 | .. |
| 제조업PMI ¹⁾ | 48.4 | 51.1 | 48.9 | 46.9 |
| 전산업PMI ¹⁾ | 56.8 | 57.3 | 53.7 | 47.1 |

주: 1) 기준치=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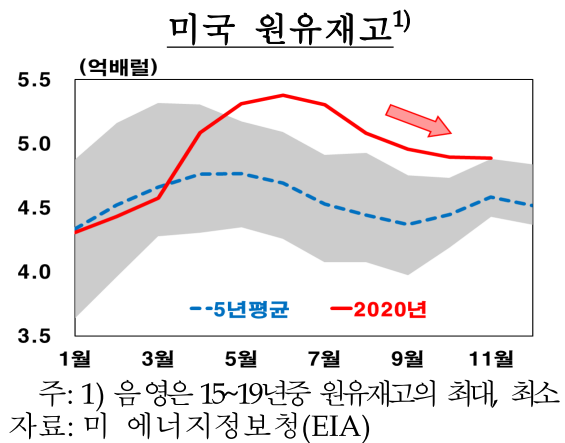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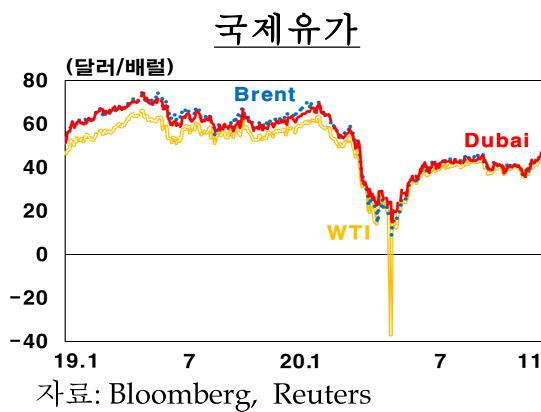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□ (국제유가)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는 최근 배럴당 4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반등

○ 코로나19 재확산, 리비아 원유생산 정상화* 등으로 한때 3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,

OPEC+의 감산 연장 가능성,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, 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오름세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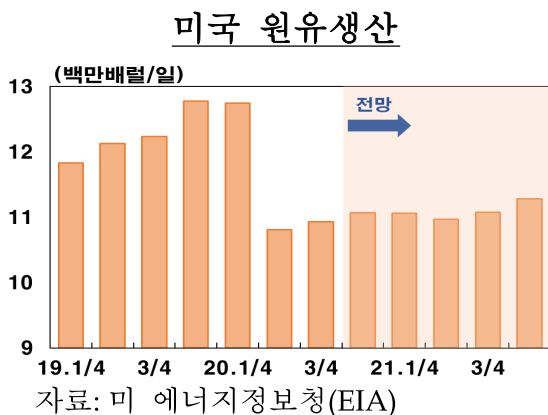
* 일일 원유 생산량을 9월 15만 배럴에서 내전 휴전협정(10.23일) 이후 11월초 100만 배럴로 확대



□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, OPEC+ 생산량 조절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○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생산이 셰일산업 위축, 바이든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 등으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

○ 반면 이란의 수출 재개 가능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



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 (달러/배럴)

| | 2020 | | 2021 | | 2022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4/4 | 연간 | 상반 | 하반 | 연간 |
| EIA (11.10일) | 40.1 | 40.6 | 44.5 | 48.5 | 46.6 |
| IHS (11.16일) | 41.1 | 41.0 | 43.7 | 50.0 | 46.9 |
| OEF (11.10일) | 41.5 | 41.1 | 44.5 | 51.7 | 48.0 |
| | | | | | 55.2 |

주: 1) 브렌트유 기준, ()내는 전망일

2. 주요 전망 전제치

(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)

- (세계)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

—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

- (국내)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

- 2020년 및 2021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-4.0%, 4.8%로 전제

- 2022년은 3.7% 성장

- 세계교역 신장률은 각각 -10.1%, 7.0%로 전제

- 2022년은 4.5% 증가

- 원유도입단가(기간 평균)는 각각 배럴당 42달러, 49달러로 전제

- 2022년은 58달러 수준

전망 전제치

| | 2019 | 2020 ^{e)} | 2021 ^{e)} | |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|
| ▪ 세계경제 성장률 ¹⁾ | 2.8 | -4.0 | 5.3 | 4.3 | 4.8 | 3.7 |
| 미 국 | 2.2 | -3.7 | 3.4 | 3.3 | 3.4 | 2.9 |
| 유 로 | 1.3 | -7.1 | 4.4 | 2.8 | 3.5 | 3.0 |
| 일 본 | 0.7 | -5.4 | 1.6 | 2.5 | 2.1 | 1.6 |
| 중 국 | 6.1 | 2.0 | 12.2 | 4.8 | 8.1 | 5.3 |
| ▪ 세계교역 신장률 ¹⁾ | 1.0 | -10.1 | 7.2 | 6.7 | 7.0 | 4.5 |
| ▪ 원유도입단가(달러/배럴) ²⁾ | 65 | 42 | 46 | 53 | 49 | 58 |

주: 1) 전년동기대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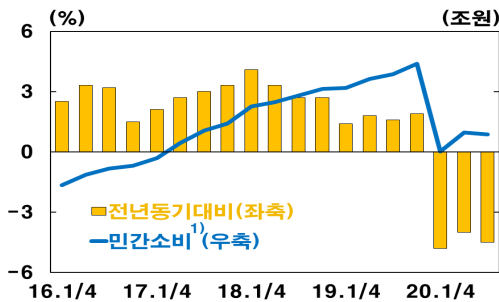
2) 기간 평균, CIF 기준, 원유도입비중(2019년 기준): 중동산 70%, 여타 30%

II. 거시경제 전망

1. 경제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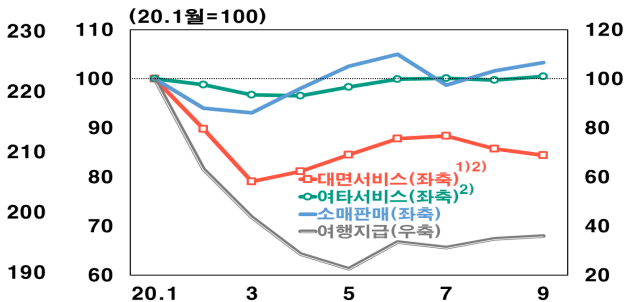
- (민간소비)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, 보건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
 - 부문별로는 재화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대면서비스와 국외소비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
 - 한편 정부 지원정책,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GDP 민간소비



주: 1) GDP 실질금액(계절조정)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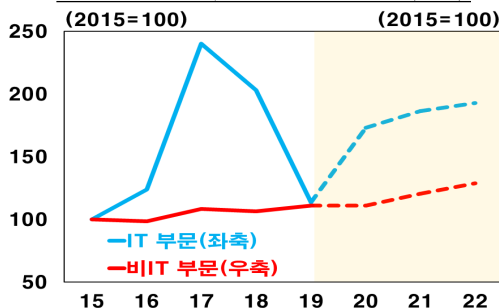
소비관련 지표 추이



주: 1) 숙박·음식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교육, 운수·창고 포함
2) 서비스생산지수 기준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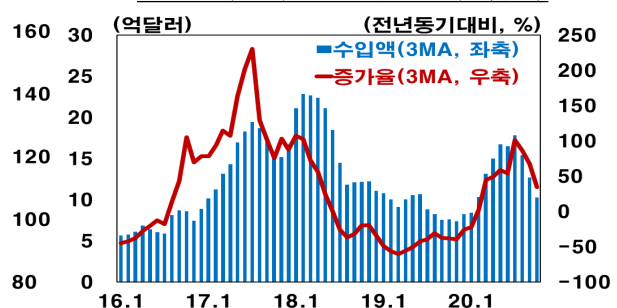
- (설비투자) IT부문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비IT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 - IT부문은 향후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투자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 - 비IT부문은 글로벌 경기부진이 완화되면서 신성장 부문 육성, 유지·보수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

IT·비IT 부문별 설비투자¹⁾



주: 1) IT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제조용 장비, 비IT는 전체 설비투자중 IT부문 제외 기준
자료: 자체 추정

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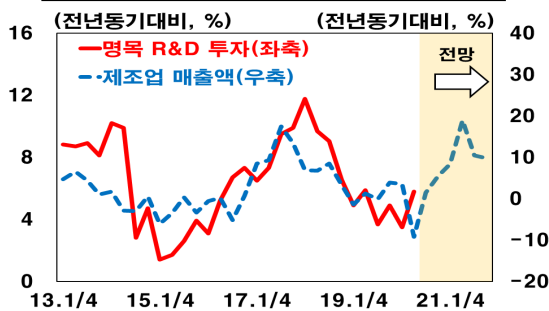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관세청

□ (지식재산생산물투자)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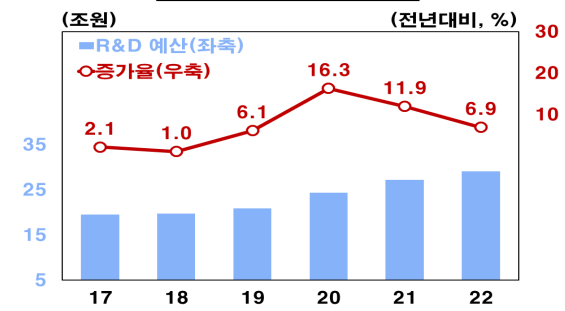
- R&D투자는 내년중 기업매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비대면 수요 확대, 정부 R&D 예산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-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명목 R&D투자 및 제조업 매출액¹⁾



주: 1) 20.3/4분기 이후는 11월 컨센서스 기준
자료: 한국은행, FnGuide

정부 R&D 예산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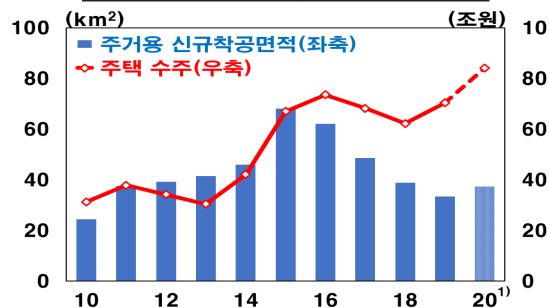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021년은 정부 예산안, 2022년은 중기재정계획 기준
자료: 기획재정부

□ (건설투자)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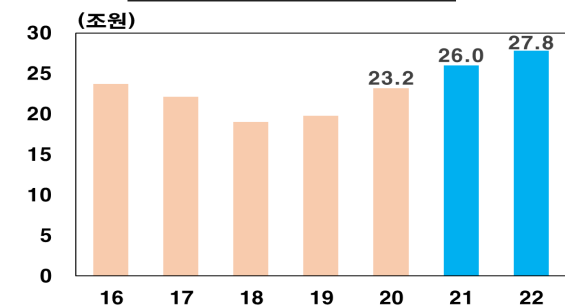
- 주거용 건물은 최근 선행지표(주택착공, 수주)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
-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 부진하겠으나 공업용 건물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

주거용 착공면적과 주택 수주



주: 1) 2020년은 1~9월 실적을 이용하여 자체 추정
자료: 국토교통부, 통계청, 자체 추정

중앙정부 SOC 예산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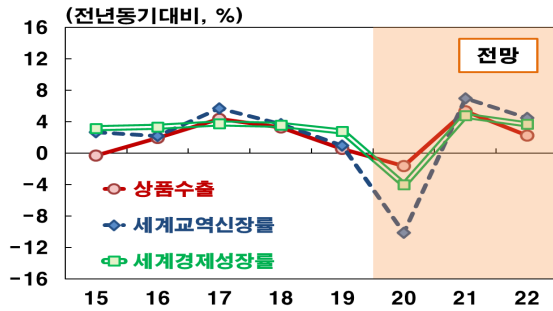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021년은 정부 예산안, 2022년은 중기재정계획 기준
자료: 기획재정부

□ (대외거래)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상품교역도 회복되면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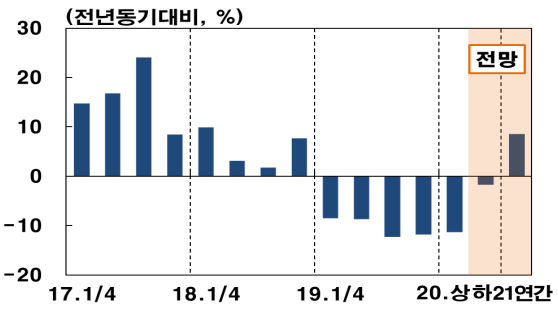
○ 통관수출의 경우 IT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증가폭이 확대되면서, 비IT 수출은 석유류 수요·단가가 모두 회복되면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교역 및 성장과 우리 상품수출¹⁾



주: 1) GDP 중 실질 재화수출
자료: 한국은행

통관수출

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

⇒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-1.1%,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.0%, 2.5% 수준을 나타낼 전망

○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,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경제성장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| | 2019 | 2020 | | | 2021 ^{e)} | | | 2022 ^{e)}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GDP | 2.0 | -0.7 | -1.4 | -1.1 | 2.6 | 3.3 | 3.0 | 2.5 |
| 민간소비 | 1.7 | -4.4 | -4.1 | -4.3 | 2.9 | 3.2 | 3.1 | 2.5 |
| 설비투자 | -7.5 | 5.6 | 5.7 | 5.7 | 4.9 | 3.6 | 4.3 | 3.2 |
| 지식재산생산물투자 | 3.0 | 3.3 | 4.2 | 3.8 | 3.8 | 4.0 | 3.9 | 3.7 |
| 건설투자 | -2.5 | 1.7 | -2.9 | -0.7 | -1.8 | 2.6 | 0.5 | 2.1 |
| 상품수출 | 0.5 | -2.9 | -0.4 | -1.6 | 9.3 | 1.9 | 5.3 | 2.3 |
| 상품수입 | -0.8 | -0.9 | -0.3 | -0.6 | 7.5 | 4.5 | 5.9 | 3.2 |

□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,

내수 기여도는 금년중 크게 축소된 후 내년중 큰 폭으로 반등하고,
수출 기여도는 금년중 큰 폭의 마이너스에서 내년중 증가로
전환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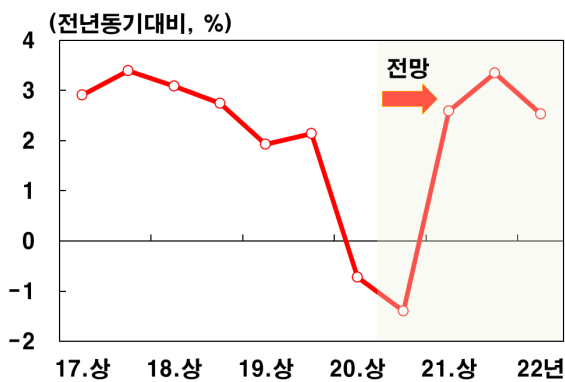
- 순성장 기여도: 2020년 내수 0.0%p, 수출 -1.1%p
2021년 내수 1.9%p, 수출 1.1%p
2022년 내수 1.9%p, 수출 0.6%p

□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*

* <참고> '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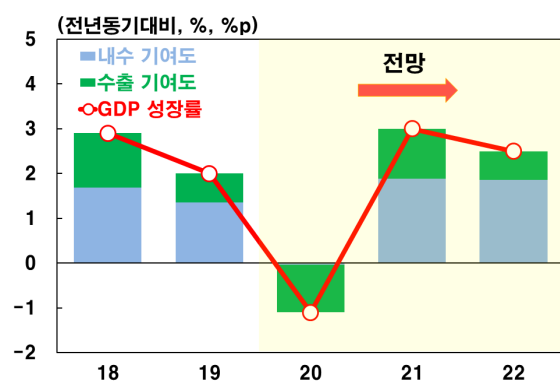
- (상방리스크) ①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의 조기 상용화, ② 국
내외에서의 추가적 경기부양정책, ③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
- (하방리스크) ①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, ② 반도체
경기 회복 지연, ③ 미·중 갈등 심화

GDP 성장률 전망경로



자료: 한국은행

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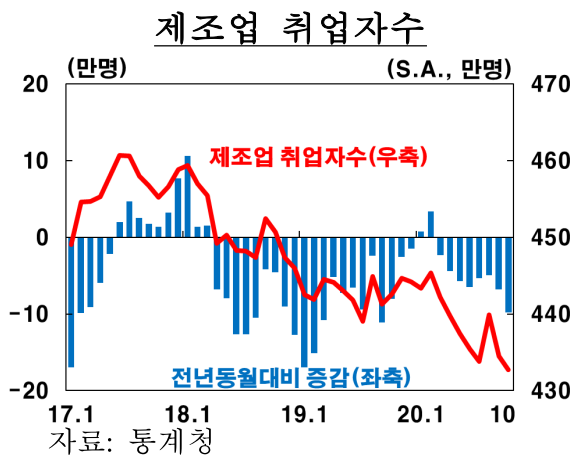
주: 1) I/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산출
자료: 한국은행

2.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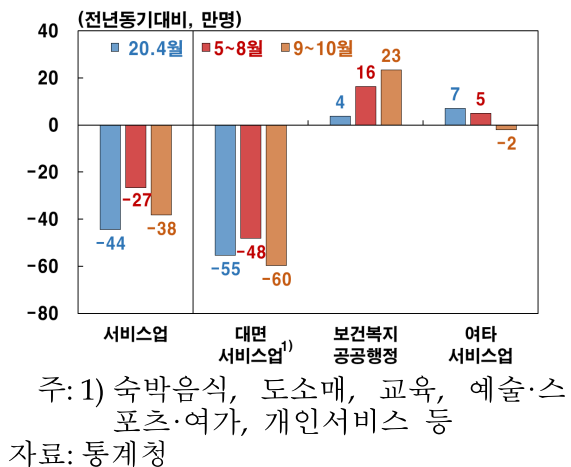
□ 취업자수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되겠지만, 내년에는 대면서비스 수요회복, 제조업 업황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○ 제조업 고용은 대내외 수요회복에 따른 업황개선으로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

○ 서비스업 고용은 대면서비스 수요회복으로 숙박음식, 도소매,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



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



⇒ 취업자수는 금년중 20만명 감소하고,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13만명, 21만명 증가할 전망

고용 전망

| | 2019 | 2020 | | | 2021 ^{e)} | |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취업자수 증감 ¹⁾ | 30 | -6 | -35 | -20 | 5 | 21 | 13 | 21 |
| 실업률 | 3.8 | 4.3 | 3.7 | 4.0 | 4.2 | 3.4 | 3.8 | 3.7 |
| (S.A.) | - | 4.0 | 4.2 | - | 3.9 | 3.7 | - | - |
| 고용률 ²⁾ | 60.9 | 60.0 | 60.3 | 60.1 | 59.8 | 60.6 | 60.2 | 60.5 |
| | [66.8] | [65.9] | [65.9] | [65.9] | [65.6] | [66.1] | [65.8] | [65.9] |

주: 1)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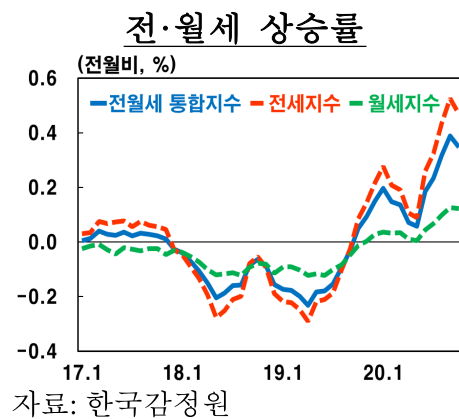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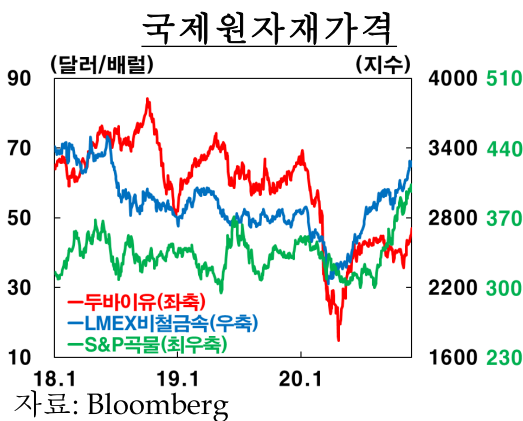
2) 15세 이상, []내는 15~64세(OECD기준)

3. 물 가

□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○ 내년중에는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*, 최근의 전·월세 상승세 등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
* 금년중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 소멸, 이동통신요금 지원(20.4/4분기)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(2020년말 종료 예정)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



⇒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중 0.5%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.0%, 1.5%로 점차 높아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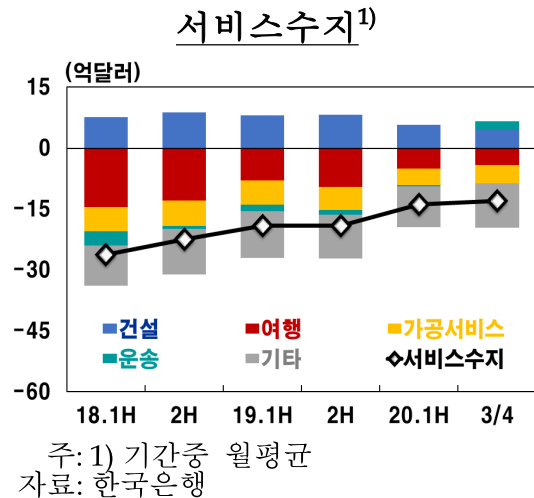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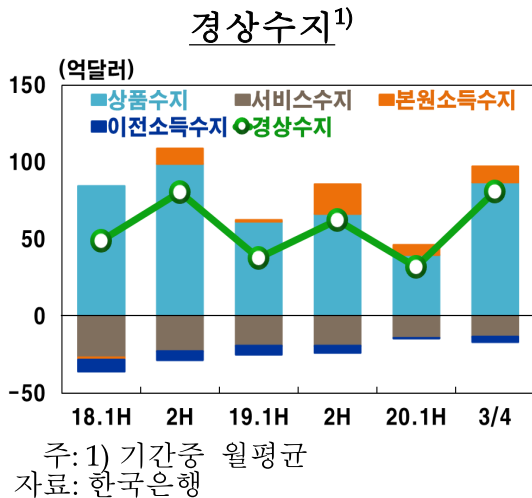
○ 근원인플레이션(식료품·에너지 제외)도 금년중 0.3%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.0%, 1.3%로 높아질 전망

물가 전망

| | 2019 | 2020 | | | (전년동기대비, %) | | | 2022 ^{e)} 연간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|
| 소비자물가 | 0.4 | 0.6 | 0.5 | 0.5 | 0.7 | 1.2 | 1.0 | 1.5 |
| 식료품·에너지 제외 | 0.7 | 0.4 | 0.3 | 0.3 | 0.7 | 1.3 | 1.0 | 1.3 |
| 농산물·석유류 제외 | 0.9 | 0.6 | 0.7 | 0.7 | 0.8 | 1.2 | 1.0 | 1.3 |

4. 경상수지

- 금년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으나, 내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
- 상품수지는 금년중 지난해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고, 내년에 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가 소폭 줄어들 전망
- 서비스수지는 금년중 여행·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,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



⇒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,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650억 달러, 600억달러 및 580억달러로 전망

경상수지 전망

| | 2019 | 2020 | | | 2021 ^{e)} | | | 2022 ^{e)}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상반 | 하반 ^{e)} | 연간 ^{e)}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연간 |
| 경상수지 | 600 | 192 | 458 | 650 | 260 | 340 | 600 | 580 |
| 상품수지 | 769 | 240 | 500 | 740 | 365 | 365 | 730 | 725 |
| 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 | -169 | -48 | -42 | -90 | -105 | -25 | -130 | -145 |

< 참 고 >

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

(시나리오별 전제)

□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

| 구 분 | 세 계 | 국 내 |
|-----|--|---|
| 낙 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2021년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|
| 기 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|
| 비 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2022년 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2022년 말경에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 |

(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)

| (전년대비, %) | 세 계 | 국 내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낙 관 | (2021년) +6.1, (2022년) +4.6 | (2021년) +3.8, (2022년) +3.1 |
| 기 본 | (2021년) +4.8, (2022년) +3.7 | (2021년) +3.0, (2022년) +2.5 |
| 비 관 | (2021년) +3.4, (2022년) +2.8 | (2021년) +2.2, (2022년) +1.9 |